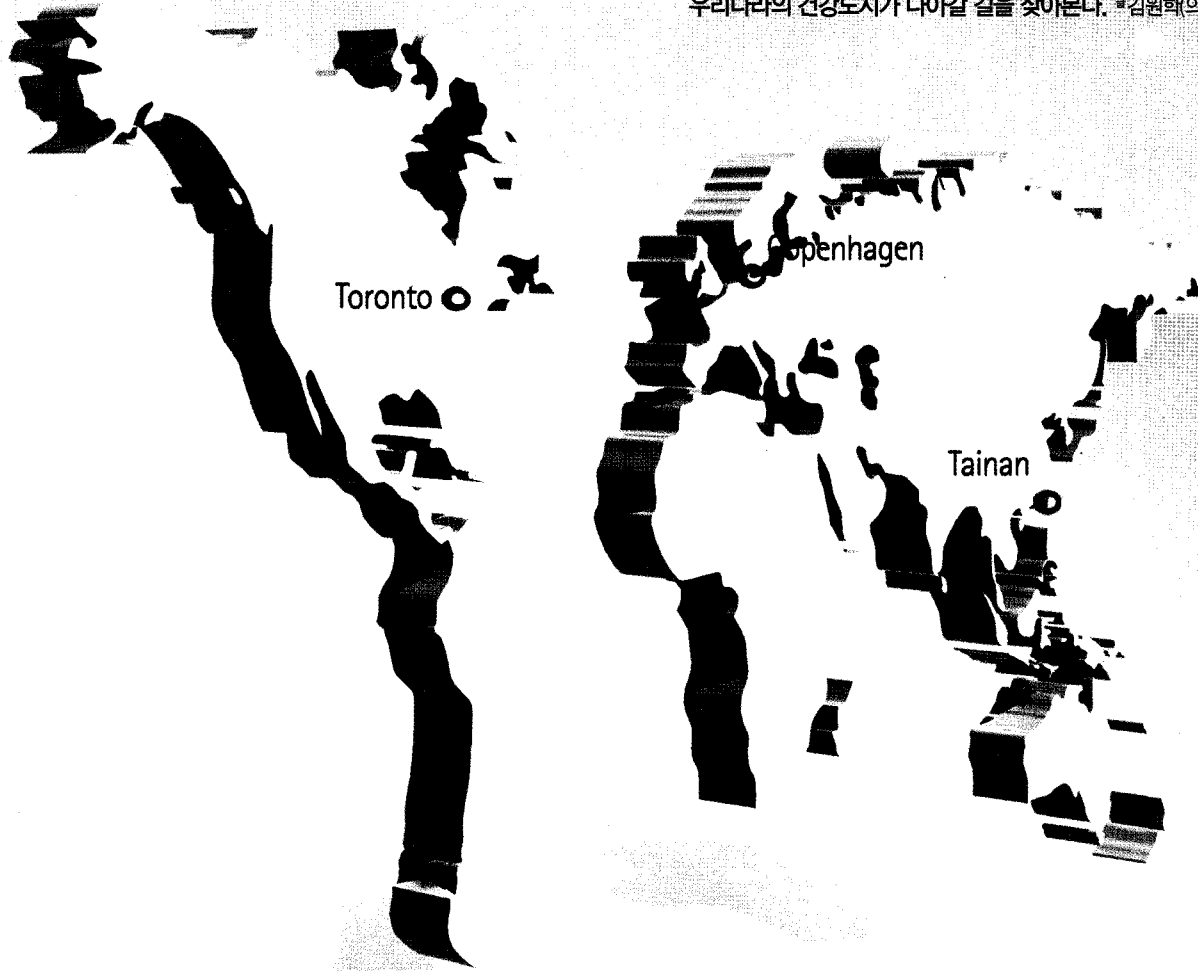


건강도시, 그 첫걸음은 시민들의 참여


# 세계 속의 건강도시에서 우리가 나갈 길을 찾다!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뿐인 건강도시가 아닌 진정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외국의 건강도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도시가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 \*김원해(의학전문기자)



## ● ● ● 국내 도시 WHO 건강도시연맹 잇따라 가입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원칙 아래 1986년부터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점진적으로 확산돼 세계 600여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건강도시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환경, 교통,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에 건강 개념을 적용해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공중보건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센터나 노인병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한 뒤 2004년 부산 진구, 서울시, 원주시, 창원시 4개 도시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정회원에 가입하면서 본격화됐다. AFHC 국내 가입도시는 2004년 4개에 그쳤지만, 2009년 현재 정회원 111개 도시 중 한국이 53개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됐다.

● ● ●  **타이완 타이난-아시아의 모범사례**

타이난은 WHO로부터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후 'Tainan Health City Project 2005~2008'을 진행시켜 아시아 전역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중심전략은 질병예방을 위한 사업과 건강증진학교 등이며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SINLAU HOSPITAL'이라는 우리나라 대학병원 개념의 병원에서는 '서비스, 사랑, 희망'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위한 강좌(질병예방, 응급조치, 건강식품)나 캠페인(금연, 걷기운동 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Health Care Shop이 활성화돼 있고, 병원 내에 무료대여시설이 갖춰져 있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많은 공원들 중 특히, 노인들을 위한 공원 내 공연시설을 만들어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이 스스로 악기를 들고 나와 매일 연주하며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 ●  **캐나다 토론토-도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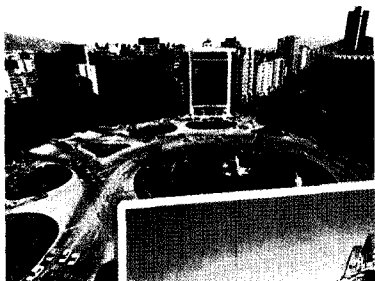
토론토는 건강도시와 관계된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획 과정에 활발히 관여해 도시의 안전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아 토론토 건강도시 모델을 실행했다.

캐나다 토론토시 공원여가부가 주관하는 '토론토편'은 전역의 커뮤니티센터와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유아부터 노인에게 이르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토론토편에서 제공하는 노인 프로그램은 여가스포츠 활동과 사회교류 활동,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여러 종류의 댄스, 스트레칭, 요가, 아쿠아피트니스, 근육 운동, 골다공증 예방운동, 태극권, 산책 클럽, 골프,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배구, 에어로빅 등이 있다. 현재 공원여가부는 6만 여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3,500개의 커뮤니티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중보건국은 노인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 ● ●  **덴마크 코펜하겐-환경 및 도시 생태 목표를 도시 건강 계획으로 반영할 계획**

코펜하겐은 1989년에 WHO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코펜하겐은 도시 자체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동부 유럽 도시들에 대한 하나의 후원자(mentor) 역할을 자임한다. 코펜하겐은 환경 및 도시 생태 목표를 향후의 도시 건강 계획으로 병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향후의 계획들을 추진한다.

코펜하겐 건강도시의 조직 구조 중 하나는 관리 기능에, 다른 하나는 현장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금연을 위한 코펜하겐센터와 건강도시 상점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우수 모델로 제시되는 건강도시의 경우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와 함께 건강도시 개발자들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으로 진행될 때 건강도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범 건강도시들은 자신들의 지방 하부구조 내에서 건강도시 틀의 아이디어를 이행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 공통분모다. ⑥

